

분 공동처리시설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는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 사업의 정착과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입니다.

수급조절에 따른 생산기반의 확립과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 시 소비홍보를 위한 의무 자조금 사업의 정착과 정부의 제도적인 장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양계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유도와 육계 및 계란 가공사업의 개발과 양계관련조합 지원을 통한 육성으로 양계산물의 올바른 소비유통을 지속

적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양계산업이 정부의 축산물 브랜드사업 참여입니다.

양계산물의 수입개방 시에 우리 양계산업이 보호되고 외국 양계산물과 차별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계산물 브랜드사업 참여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양계협회의 기능과 양계조합의 기능을 융합하여 올바른 양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계**

백세미 질병 근원부터 치유하도록 법적 뒷받침에 힘써야

최 성 천

요한농장 대표/ PS 친목회 회장

다의 해에 17대 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기간(2005년 2월 22일부터 2008년 2월) 동안 양계업계는 수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자유무역시대에 많은 나라와 FTA 타결로 외국 양계산물 수입이 보다 손쉬워져 국내 양계업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정책, 악취방지법 발효, 웰빙으로 우리 양계산물은 수입산물과 경쟁뿐만 아니라 친환경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

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양계인 생존을 위해선 종계, 산란계, 육계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똬똬 뭉쳐야 합니다.

농가들이 계종을 떠나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협회장님이 노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종계업계에 당면한 사안은 많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종계장 방역시설 지원과 오는 5월 시행되는 종계장방역관리요령의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종계업 발전을 위하여 종계장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종계농가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바이지만 질병의 온상인 백세미 농가에 대한 관리 없이 일반종계 농가의 질병 관리만 하겠다는

것은 병의 근원은 방치하고 외상만 치유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상생의 원칙에도 벗어나 이 요령의 실효성마저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계업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장님의 역량과 종계농가의 단합으로 종계장 관리요령을 바로잡아 종계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임기동안 당면한 양계업 현안을 잘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시 한번 회장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양계

육계업 생산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펼쳐야...

김 영 근

부산경남 지회 육계분과위원장

우 선 대한양계협회 제17대 회장 당선 축하합니다. 지난 3년은 양계산업에 많은 사련과 변화가 교차하는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생산량 과잉으로 인하여 육계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 농가는 기로에 섰으며 설상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산업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까지 왔던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해는 산물가격의 상승으로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논의되고 방향이 제시되었다. 이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7대 회장님께 기대를 하며 몇 가지 건의합니다.

첫째, 산물의 과잉생산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산출 방식을 마련하여 전과 같은 불황을 격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 종계 D/B구축 사업은 우리 육계인으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보며,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에 최선을

